

K-뷰티 호조에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

상반기 수출액 첫 640억 달러 돌파... 화장품·반도체·온라인 수출 견인

중소기업 수출이 K-뷰티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만490개사로 집계돼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실적은 K-뷰티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 수출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산업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50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0.7%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62.4%)과 북미(36.8%)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중남미 수출은 131.9% 급증하는 등 신흥시장 확대도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48.3% 증가한 22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20억3천만 달러로 33.2% 늘며 모두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다. 홍콩과 베트남 등 반도체 유통 및 후공정 거점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계측제어분석기도 베트남과 대만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30.2% 성장한 12억8천만 달

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15.2% 감소한 33억1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04억8천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정밀화학원료, 의류 수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미국 수출도 관세와 소액면세 폐지 등 통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99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10대 수출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홍콩(61.8%), 대만(31.1%), 인도(23.5%)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수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상반기 온라인 수출액은 48.8% 증가한 7억4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도 4천51개사로 30.5% 늘었다.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미국과 중국, 네덜란드, 영국 등을 중심으로 85.3% 급증한 5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중동 지역 수출은 전쟁 여파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12.6% 줄어든 27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 관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 복숭아 대축제 개최

하나로마트서 제철 복숭아 할인·시식 행사 진행

북전주농협이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철을 맞아 지역 대표 특산물인 원동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판매행사를 마련했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4일까지 하나로마트에서 '복숭아 대축제'를 열고 지역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원동 복숭아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동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제철 복숭아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시식 행사와 할인 행사도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상근 기자



원동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속에서 재배돼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향을 갖춘 지역 대표 여름 과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북전주농협 선별장에서 엄선한 우수한 품질의 복숭아만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 전주 사무소 개소

미국 제외 첫 '한 국가 2개 사무소' 운영... 국민연금 협력 강화



지난 22일 전주시 만성동에서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Starwood Capital Group)의 전주 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인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이 전주에 신규 사무소를 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 확대와 전주 금융중심지 육성에 힘을 보탠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2일 전주시 만성동에서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Starwood Capital Group)의 전주 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배리 스티븐리흐트(Barry Stemlich) 창업주 겸 회장·CEO, 마이클 레프튼(Michael Lefton) 글로벌 투자유치 및 IR 총괄 대표, 최영재(Daniel Choi) 한국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우드는 201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 부동산 대체투자 위탁운용을 맡아온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다.

이번 전주 사무소는 지난해 서울 마곡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무소로, 본

사가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주 사무소는 국민연금의 글로벌 투자 전략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전북 지역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리 스티븐리흐트 스타우드 회장은 "전주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국민연금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스타우드의 역할도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대표 대체투자 운용사인 스타우드의 전주 사무소 개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스타우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전주 금융산업 발전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우드 전주 사무소 개소로 전주에 진출한 해외 자산운용사는 12곳으로 늘었으며, 국내외 금융기관을 포함하면 전주에 입주한 금융기관은 총 25개사에 달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동아대,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역 정착 지원 협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동아대학교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 부산외국인금융센터는 동아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광영 전북은행 부행장과 열정국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국제처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공고와 직무요건 등 취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 추천한 우수 유학생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과 산학협력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인재개발원,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교육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원장 박지영)은 지난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수료생 90명 가운데 4명이

올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채용형 인턴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이를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지난해 3개 직업계고와 함께 전기설비실무 등 4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와 순천미래고등학교를 추가해 모두 5개교, 6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상근 기자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의 이론교육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학생들이 전기안전 분야의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이번 교육 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특수목적기계 A-SW 선정기업 기술 멘토링 워크숍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특수목적기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술 멘토링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김제시,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23일 '2026년 특수목적기계 개방형 A-SW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멘토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와 특수목적기계를 생산하는 도내 기업들이 기존 제품에 A-SW(Application Software)를 적용해 자동화와 무인 자율작업, 작업자 충돌 방지 등 첨단 기능을 구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과제 초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또한 기업별 제품 현황과 기존 제어 시스템의 한계를 분석하고, 특수목적기계 A-SW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시스템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